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들이 부르는 노래의 현상학적 연구

임 부 연* · 김 소 영** · 최 남 정***

노래는 인간의 사회적 언어와 심미적 기능의 중간지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능적 소리에 멜로디와 이야기를 담은 인간의 독특한 삶의 양식중의 하나이다. 본 연구는 새 노래 배우기나 교사주도의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노래의 단편적 접근을 넘어서서 교실의 주체인 유아가 부르는 노래의 의미를 현상학적 관점에서 탐구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4곳의 유아교육기관에서 각 한 교실씩 전체 네 교실을 각각 7회기씩 관찰하였다. 본 연구 결과 유아들은 즐겁거나 몰입하였거나 노래를 부르고 싶다는 내적동기가 발생할 때 노래를 부르는 미적경험으로서의 노래와 또래문화를 만들고, 대중문화를 즐기고, 독창적 문화를 형성하는 문화로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이를 통해 유아교실에서 유아들의 삶을 풍요롭게 의미화 해주는 심미적 매개자인 노래의 교육적 의미는 유아를 둘러싼 또래와 가정, 지역과 사회적 삶의 문화의 지표로 보다 확장되어 이해되어야 함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 주제어 : 유아노래, 아동, 음악교육

차 례

I. 서 론

II.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2. 연구절차 및 자료수집
3. 자료분석

III. 연구결과

1. 미적 경험으로서의 노래
2. 문화로서의 노래 즐기기

IV. 논의 및 결론

* 부산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주저자)

** 부산 법원 어린이집 교사

*** 경성대학교 유아교육과 강사(교신저자) E-mail: 0202yaisi@hanmail.net

I. 서론

인간은 ‘소리’에 기초를 둔 음악예술을 통해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표현하고, 삶의 의미를 창출해 왔다. 고대 철학자 플라톤(Platon)은 음악이란 우주이자, 인간이고, 악기라고 하였으며, 쇼펜하우어(Schopenhuer)는 인간이 낳은 최고의 문화적 산물인 예술 중에서도 최고의 꽃은 음악이라고 하였다(이홍수, 1990). 교육학자인 페스탈로찌(Pestalozzi)도 음악이 인간의 지적, 도덕적, 신체적 발달에 도움을 준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모든 어린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칠 것을 주장하였다(김영연, 2002). 도로우(Darrow, 1976)와 맥도날도(McDonald, 1991), 넬슨(Nelson, 1984) 역시 유아는 태어날 때부터 소리에 순응하고 소리의 리듬과 음의 형태에 주의를 기울여 탐색하는 탐색자이며 음악의 창조자임을 밝히고 있다.

다양한 음악의 장르 중에서도 노래는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신체를 활용하여 표현하는 것으로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즐거움의 하나이다. 이러한 노래는 어린 유아들이 언어를 배우기 이전에 소리의 강약이나 리듬이 포함된 음악적 웅알이를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하겠다. 듀이(J. Dewey, 1934)에 의하면 노래는 인간의 경험으로부터 나오며 인간생활에서 직접적인 기능을 갖고 있으므로 인간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필수 불가결한 도구이다. 특히, 언어구사 능력이 미숙한 유아들이 자신의 생각과 느낌 그리고 감정과 정서를 표현하기 위해 노래를 부르는 것은 유아들의 세계에서는 노래가 가장 훌륭한 언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실제로 유아들은 ‘가나다라’나 ‘아이우에오’의 자음과 모음과 같은 개념적인 언어를 배우기 이전에 허밍과 같은 멜로디에 먼저 익숙해진다. 이것은 니체(Nietzsche, 1973)의 “말할 수 없으면 노래하라”라는 말과 라캉(J. Lacan)이 “소리, 즉 음(音)이 말을 앞선다(Evans, 1998)”고 한 의견 및 로톤과 웰리(Lorton, Wally, 1979), 홀렌더와 줄스(Hollander, Juhrs, 1974)가 유아들은 말보다 노래를 통해서 감정을 더 잘 전달할 수 있다고 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 이와 같은 점에서 유아들이 부르는 비언

어적이고 비구조적인 노래는 유아들에게 있어서는 생래적이고, 본능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유아들의 노래 부르기 활동은 유치원교육과정의 표현생활영역에서 찾아볼 수 있다. 2007년 개정 유치원교육과정 표현생활 영역에는 음악활동과 관련하여 목소리, 신체, 사물, 악기로 소리의 빠르기·세기·리듬 찾아보기, 노래 부르기, 노래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기, 전래 동요 부르기, 신체나 리듬악기를 이용하여 간단한 리듬 패턴 만들기, 즉흥 연주하기 등을 주요내용으로 선정하고 있다. 실제 유아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은 앞에서 열거한 음악활동들을 실천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열거한 것과 같이 매우 다양한 음악활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유아교실에서 교사들은 악기 다루기나 음악극과 같은 창작활동을 노래 부르기처럼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지 않으며, 유치원 일일 교육계획안에는 노래 부르기와 음악 감상하기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권창길, 배현숙, 2002; 김순옥, 2001; 김혜전, 2004; 박미경, 엄정애, 2002; 이민정, 2001; 이인원, 김일영, 2005). 그렇다면 유아교육 현장에서 음악활동의 내용을 골고루 다루지 않는다는 점이 유아음악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일까? 오히려 오늘날 유아음악교육이 가지는 문제는 음악활동의 다양성보다는 음악을 향유하는 근원적 정신에 대한 가치상실과 부적절한 교수방법에 기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의를 기울여 봐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유아교육기관의 음악활동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유아교육현장의 음악교육활동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연구(김미옥, 2003; 윤현진, 2002; 이영주, 2005; 이은수, 2004; 임혜정, 2004; 임혜정, 김영연, 2004), 노래를 비롯한 음악의 교육적 효과에 관한 연구(김연주, 2008; 마송희, 오채선, 2005; 박찬옥, 이효숙, 2001; 윤영배, 2008; 이유영, 엄정애, 2003; 이태분, 2006; 이효숙, 2001; 황성숙, 2004; Turner, 2000), 다양한 음악프로그램에 관한 연구(김광자, 2004; 김법순, 2009; 윤영배, 2008; 윤은미, 2007; 장은주, 2007; 장은희, 2007)에 집중되어 있으며, 유아음악에 대한 질적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엄정애, 송정, 박미경, 2009; 이민정, 2001).

한편, 유아교실에서 노래는 교사 주도의 새 노래 배우기에 한정되어 있

으며, 교사 자신의 의도에 의해서 정확한 음정이 나올 때 까지 여러 번 반복적으로 노래를 부르도록 요구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나 교사에 의해 교수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교수매체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송윤나, 2001; 신인숙, 2000; 장송희, 2004; Katsuko, 1998).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발달 특성이나 내면적 의식 현상까지도 ‘조작적 정의’로 이해하고 측정가설을 통해 검증하는 방식을 취했던(유혜령, 1998) 종래의 실증적 연구들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다. 즉, 유아음악교육의 목표를 실행하고 있는 유아교실에서 음악이란 다면적이고 복잡한 유아 삶의 내면적 의미화 과정을 거쳐 표현하는 음악적인 경험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교사들의 피아노 반주에 따라 유아들이 노래를 따라 부르는 정도로 의존적인 음악적 경험에 초점을 두거나(주은주, 1993), 노래를 음악활동의 하위영역으로서 귀속시키고 교수활동을 위한 학습수단으로 인식하고, 기술적이고 효과적인 면만을 찾아내려는 노력에 불과하며, 유아의 자연스러운 경험에서 나타나는 노래를 단순히 발달 과제적 측면에서 살펴보는 것이다.

그러나 리듬을 중시하며 유치원의 하루일과 중에서 노래가 자주 흘러나오는 발도르프 유치원의 경우 교사들이 ‘소리’에 매우 주의를 기울이고 독특한 심미적 방식에 따라 다루고 있다. 특히, 소리의 원음인 사람의 목소리에 주의를 기울여서 챈트를 유아들과의 생활에서 수시로 사용하고 있다(임부연, 2005). 다시 말해 발도르프 유치원의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노래이며(한주미, 2005), 음악 리듬의 모든 흐름이 유아의 노래 소리와 함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유아교실에서의 노래는 교사에 의한 새 노래 부르거나 노래 함께 불러보기 등과 같은 교사 주도적 교수만으로 나타나지 않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음악교육에서 가장 근본이 되어야 하는 ‘인간’에 대한 이해를 소홀히 함으로써 인간의 경험을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오류를 넘어 유아교실에서 ‘노래’의 의미를 유아음악의 궁극적 가치와 의미에 관심을 집중하여 음악과 인간의 정신적 근원성이라는 본질적 가치에 대한 문제로 접근해 보고자 한다.

마리(Maryee, 1976)는 유아들은 자신이 조작하여 소리 내고 싶어 하는

본능이 있으며, 이 본능을 만족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유아들의 흥미와 병행하는 다양한 노래들이 유아교육기관에서 매일 매일의 교과과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유아교육기관에서 음악활동 중 노래가 유아 개인에게 가장 가까운 음악표현이기 때문에 음악활동의 시작은 신체적 악기인 목소리를 통해 시작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유아들의 노래는 유아 생활세계의 내부로부터 피부로, 마음으로 느껴진 것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유아가 경험하거나 체험하는 일 속에서 이루어지는 노래들이다. 다시 말해 유아교실에서 ‘노래’는 교사가 가르치는 노래를 넘어 유아가 부르는 노래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생활세계를 드러내주는 것이며, 이는 단순히 노래 부르기의 음악활동을 넘어서서 유아의 삶과 세계에 대한 인식, 또래와 문화에 대한 능동적 지식구성자로서의 삶의 전체를 드러내주는 매우 중요한 단서들을 함축하고 있다. 그러므로 유아교실에서 노래의 의미를 중층적으로 드러내 주기 위해서는 유아 개개인의 주체적인 경험의 내용과 질을 개방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현상학적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유아들만의 독특한 경험세계에서 나타나는 본유적인 특징인 노래를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유아노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는 지금까지 노래에 대해 가지고 있던 정형화된 틀에서 벗어나 유아의 노래를 단순한 사고의 표현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유아들의 욕구를 표현해주는 하나의 행위라는 점에서 노래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관점을 제시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며, 세상과 유아를 이어주는 매개체로서의 노래를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가 부르는 노래를 현상학적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유아들이 부르는 노래의 의미를 보다 심층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유아들의 삶과 생각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으며, 유아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유의미한 노래 부르기 활동을 계획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들이 부르는 노래의 의미를 다양하고 폭넓게 이해하기 위하여 다양한 유아교육기관과 다양한 연령의 연구 참여자 유아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유아교육기관의 하루 일과는 기관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나 교육 철학의 배경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이기도 하였으나 대부분 등원 및 자유선택활동, 전체 모임, 소집단 활동, 바깥놀이, 산책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그날의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운영되고 있었다.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A유치원은 U시에 소재한 사립 유치원으로 국가수준 유아교육과정과 생태유아교육 및 발도르프 유아교육을 병행하고 있는 곳이었다. A유치원의 8학급 중 민들레반은 만 4세 학급으로 남아 12명, 여아 18명, 총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P시에 소재한 B어린이집은 민간 어린이집으로 표준보육과정에 따라 운영하는 곳이었다. B어린이집의 12학급 중 연구 참여자로 선정된 진달래반은 만 4세 학급으로 남아 12명, 여아 9명, 총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C유치원은 P시에 소재한 사립 유치원으로 국가수준 유아교육과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었다. C유치원의 6학급 중 연구 참여자로 선정된 개나리반은 종일반으로 만 3세 남아 1명, 만 4세 남아 3명, 여아 2명, 만 5세 남아 4명, 여아 3명, 총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D어린이집은 P시에 소재한 어린이집으로 공동육아를 지향하며, 시·공간 및 연령의 통합적 운영을 하고 있었다. D어린이집의 연구 참여자는 3학급 18명 전원으로 만 1세-4세 남아 8명, 만 1세-5세 여아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연구 참여자의 기관 및 연령별 구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 유아의 연령별 특성

유아교육기관		A 유치원		B 어린이집		C 유치원		D 어린이집	
연령	성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만 1세							2	2
유아배경	만 2세							2	1
	만 3세					1	0	1	1
	만 4세	12	18	12	9	3	2	3	5
	만 5세					4	3	0	1
	계	30		21		13		18	

2. 연구절차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사전 연구단계, 자료수집단계, 분석 및 해석단계로 이루어졌다. 사전 연구단계에서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들이 부르는 노래의 의미를 해석해 보는 것을 연구내용으로 선정하고, 유아들의 노래를 관찰하기 위해 임의로 선정한 유아교육기관에 동의를 구하여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였으며, 구체적인 관찰일정을 계획하였다. 자료수집 단계에서는 본 연구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유아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유아들의 하루일과를 비 참여관찰을 실시하였고, 비디오 촬영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구체적인 자료 수집을 위해 2007년 12월 20일 부터 2008년 2월 22일까지 유아교육기관의 하루일과를 중심으로 10주 동안 4개의 유아교육기관을 각 기관별 7회기씩 총 28회기에 걸쳐 비참여관찰을 실시하였고, 비디오 녹화, 사진자료, 연구자 일지를 작성하였다. 수집된 비디오 녹화자료는 유아들의 살아있는 이야기를 기록하기 위해 가능한 관찰 당일 바로 전사하였으며, 관찰이 이루어지는 동안 연구자가 느낀 느낌이나 특이사항을 연구자 일지로 기록하였다. 유아가 부르는 노래에 대한 유아의 의도나 동기, 감정 등을 파악하기 위해 유아와의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한 비형식적인 면담이 이루어졌으며, 면담내용은 모두 녹취하여 전사하였다.

분석 및 해석단계에는 수집한 비디오 촬영을 전사하고, 각각의 에피소드를 주제별로 유목화하여 그 의미를 해석하였다.

구체적인 자료수집 일정은 <표 2>와 같다.

<표 2> 자료수집 일정

구분		A 유치원	B 어린이집	C 유치원	D 어린이집
사전모임	일시	07.12.18	07.12.18	07.12.19	07.12.19
	연구목적	·사전정보 수집 및 친밀감 형성			
	자료수집	·본 연구에 대한 의견 교환			
예비관찰	일시	07.12.20 (1회)	07.12.27 (1회)	08.1.10 (1회)	08.1.2 (1회)
	연구목적	· 유아의 노래관찰 및 본 관찰을 위한 정보 수집			
	자료수집	·비디오촬영 및 비형식적 면담			
집중관찰	일시	08.1.11~08.2.14 (총 5회)	07.1.17~08.2.15 (총 5회)	08.1.15~08.2.12 (총 5회)	08.1.16~08.2.13 (총 5회)
	연구목적	·예비관찰을 통한 정보를 바탕으로 유아들의 노래를 집중 관찰			
	자료수집	·비디오촬영 및 비형식적 면담			
추후관찰	일시	08.2.21 (1회)	08.2.18 (1회)	08.2.19 (1회)	08.2.20 (1회)
	연구목적	·예비관찰과 집중관찰에서 수집한 자료의 적절성을 확보하고 예비관찰과 집중관찰에서 간과되었던 상황들을 관찰			
	자료수집	·비디오촬영 및 비형식적 면담			

3.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유아교육기관에서 발생하는 유아노래를 촬영한 비디오 녹화본의 전사본과 유아 및 교사의 비형식적인 면담, 연구자일지, 사진자료를 중심으로 현상학적인 시각으로 분석하였다. 현상학적 자료 분석 과정은 연구자의 관심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연구자가 발견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제시할 수 있도록 참여관찰과 심층면담을 통해 수집한 전사본이나 다른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탐구하고 정리하는 과정이다

(Strauss & Corbin, 1990). 즉, 자료를 조직화하고 분류화하고 범주화하여 패턴을 찾아내는 종합 활동인 것이다. 따라서 연구자는 자료 분석에 있어서도 일회적으로 끝내지 않고 자료 분석이 순환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수집한 자료로부터 의미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자료가 연구자의 선입견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관찰 장면에 대한 궁금한 점은 유아교사교육 전문가 1인과 유아교육 전공 박사 2인과의 대화와 협의를 통해 여러 차원에서 유아들이 부르는 노래의 의미를 조명하고 규명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자료의 분석방법은 전사(transcription), 분류화(categorization), 의미화(conceptualization)의 과정을 거쳤다. 본 연구자들은 전사과정에서 연구자들의 선입견이나 오류를 배제하기 위하여 가능한 비디오 촬영 당일 전사하였으며, 최대한 연구 참여자의 입장에서 있는 그대로를 묘사하여 기술하려고 노력 하였다. 분류화의 과정에서 연구자들은 교사의 노래를 촬영한 비디오 녹화 전사본과 연구자일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으며, 전사 자료를 반복적으로 여러 번 읽으면서 중요한 단어나 문구들로 코드화하여 연구문제에 따른 결과별 사례로 분류하였다. 마지막 분석과정인 의미화는 코드화 작업에서 배열된 주제나 분류에 의미를 부여하고 범주화시키는 작업과정이다. 도출된 범주와 주제어는 원 자료 중 비디오 촬영 자료와 연구자일지, 전사된 자료간의 일치도를 알아보았고, 자료 분석에 대한 객관성을 기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분석된 자료를 원 자료와 비교하여 재분석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수집한 자료를 의미화 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의 선입견을 배제하기 위하여 유아교사교육 전문가 1인 및 유아교육 전공 박사 2인과 함께 삼각측정법(Triangulation)을 사용함으로써(Mathison, 1988) 해석의 적절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미적 경험으로서의 노래

일반적으로 미적 경험은 일상적 경험과 구별되는 것으로, 즐거움, 몰입, 내적 동기, 통일성, 완결성, 완전성, 자유로움 등의 특성을 가진다(김황기, 2007; 임부연, 2008). 유아들 역시 즐거운 놀이를 하거나 그들이 하고 있는 작업에 몰입할 때 또는 하루 일과의 틈새에서 노래를 부르고 싶은 욕구를 느낄 때에 자유롭게 부르고 있었다.

1) 즐거운 놀이에서 나오는 노래

‘노래’라는 말이 ‘놀이’라는 말의 어간에서 나온 ‘놀애’의 이름씨 끝에서 비롯된 것(편해문, 2002)에서 알 수 있듯이 유아들은 놀이 가운데 노래를 부르거나 노래를 부르면서 놀이를 지속하여 재미와 흥을 더하고 있었다. 이렇게 불려진 노래는 그들이 하고 있는 놀이의 즐거움을 표현하는 것이자 보다 즐거운 놀이로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수인 : (엄지손가락을 내밀면서 리듬있게) 다만고 할 사람 여기 여기 붙어라~ 다만고 할 사람 여기 여기 붙어라~

(현준, 유민, 소영, 지희, 근우, 병찬이가 수인의 엄지손가락을 붙잡고 있다.)

아이들 : 십, 구, 팔, 칠, 육, 오, 사, 삼, 이, 일, 영.. 땡!!

아이들 : (리듬을 넣어 앓았다 일어 났다를 말하며, 그들의 몸도 앓았다 일어 났다를 반복 하면서)

앓았다 일어났다 앓았다 일어났다~ 가위바위보~

아이들 중에 근우와 현준이가 술래가 되었다.

근우, 현준 : 십, 구, 팔, 칠, 육, 오, 사, 삼, 이, 일, 땡!!!

근우와 현준이가 다른 아이들을 잡으러 간다.

(D 어린이집, 2008, 1, 16)

수인이는 산책 장소에 도착하자 ‘다만고’ 놀이를 계획하였다. 잡기놀이의 일종인 ‘다만고’는 혼자서 하는 놀이가 아니라 여러 명의 놀이 친구들 필요로 하였으므로, 놀이를 계획한 수인이는 ‘다만고’놀이에 필요한 친구들을 모으고자 하였다. 이 때 수인이가 친구들을 부르기 위해 사용한 것이 노래이다. 수인이는 정확한 음정과 박자 및 가사를 갖춘 교과서적인 노래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다~만~고 할 사람 여기 여기 붙어라~!”라는 말에 리듬을 붙여 노래를 부름으로써 친구들을 모으고 있었다. 수인이의 노래 소리를 들은 친구들은 노래와 놀이의 즐거움에 이끌려 수인이 곁으로 오게 되었고, 술래를 정하기로 하였다. 수인이나 친구들은 술래를 정하는 방법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간단하게 가위 바위 보만 하지 않고, 노래에 단순한 동작을 곁들인 “앉았다 일어났다 (2번)~ 가위 바위 보!”를 하여 술래를 정하였다. 이와 같이 수인이와 친구들은 놀이를 할 때 노래를 부름으로써 놀이의 즐거움을 표현하고 있었으며, 이렇게 부른 노래로 인해 그들의 놀이는 한층 더 흥미로운 놀이로 확장되고 있었다.

준경이와 재현이는 쌓기영역에서 블록으로 총을 만들고 있다.

준경 : 나는 더 멋진 총 만들어야지~

재현 : 총 만들려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재현이와 준경이는 블록으로 총을 만들면서 재현이가 파워레인저 노래를 부르니, 옆에서 준경이도 블록으로 총을 만들면서 재현이와 함께 파워레인저 노래를 부른다. 아이들은 파워레인저 놀이를 하자고 한다.

재현 : 우리 파워레인저 놀이하자.

준경 : 파파파워레인저~디디디~ 디디디~

(A 유치원, 2008, 1, 11)

준경이와 재현이는 쌓기영역에서 블록으로 총을 만들고 있었다. 재현이는 멋진 총을 만들 수 있는 블록놀이의 즐거움으로 인해 자신도 모르게 파워레인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였다. 재현이와 같이 총을 만들던 준경이도 재현이의 노래를 듣고 곧장 따라 부르기 시작하였다. 파워레인저 노래를 부르면서 총을 만들던 준경이와 재현이는 파워레인저 노래로 인해

그들이 만들던 총에서 파워레인저에 나오는 칼을 연상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블록 총은 파워레인저 칼이 되어 파워레인저 놀이로 이어졌다. 이때 불러진 파워레인저 노래는 조금 전까지 블록 총을 만들던 놀이에 파워레인저 칼의 의미를 부여하여, 블록 총을 만들던 활동에서 유아들로 하여금 파워레인저 놀이를 하도록 놀이를 확장시켰다.

이와 같이 유아들은 그들이 계획하고 실행하는 놀이가 즐거울 때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또한 유아들이 놀이를 하면서 의식 혹은 무의식적으로 부르는 노래는 단조로울 것 같은 놀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여 즐거움을 더하고 흥을 돋우는 매개체 역할을 하였다.

2) 몰입 경험에서 나오는 노래

유아들은 직접 겪고 있는 경험의 세계 즉, 생활세계에서 지속적으로 들음으로 인해 귀에 익숙해진 노래가 들려오면 자신들이 미처 인식하기도 전에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 모습을 종종 관찰할 수 있었다. 이처럼 어떠한 것에 집중하여 그것에 관한 인식과 판단 이전에 행위가 발생하는 것은 몰입 경험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Merleau-Ponty(1962)에 의하면, 우리의 신체는 모든 표현 공간의 근원지일 뿐만 아니라 표현운동 그 자체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신체는 어른에게 보다는 특히 유아들에게는 큰 의미를 지닌다. 즉, 유아들이 어떠한 것에 몰입하였을 때 얻게 되는 즐거움은 유아들의 신체를 매개로 하여 세계와 직접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노래 또한 유아들의 행위와 인식이 통합되는 몰입의 순간에 나타나는 현상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기 활동을 하는 동안 카세트에서는 노래가 나오고 있었다. 지민이는 카세트에서 나오는 노래를 따라한다.

지민 : (그림을 그리면서 노래를 부른다.)

파랑새야 파랑새야 쫓로롱 파랑새야~

(지민이가 그림을 그리는 동안 ‘파랑새’노래는 끝나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라는 노래가 나온다.)

지민 : (계속 노래를 부른다)

몇 천 번을 불러도 더 부르고 싶은 말~ 내가 제일 좋아하는 그
런 말이 하나 있죠~

(지민이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니 옆에 있던 정우와 하진이도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그림을 그린다.)

지민, 정우, 하진 : 어머니를 부를 때 마다 다가선 어머니 얼굴~

하진 : 내가 제일 좋아하는~ 어머니 내 어머니~

(아이들은 계속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다. 노래 2절이 흘러나온다.

하진이는 그림을 그리면서 2절을 끝까지 따라 부른다.)

하진 : 몇 천 번을 불러도 더 부르고 싶은 말~ 내가 제일 좋아하는 그
런 말이 하나 있죠~ 어머니를 부를 때 마다~ 다가선 어머니 얼굴~
나에게 사랑으로 가르치시네~ 몇 천 번을 불러도 더 부르고
싶은 말~ 내가 제일 좋아하는 어머니 내 어머니~

(하진이는 그림 그린 것을 말리기 위해 옆 책상에 펼쳐 놓는다.)

(C 유치원, 2008, 1, 29)

지민이나 정우와 하진이는 그림 그리기 활동을 하고 있었고, 카세트에서는 교사가 틀어놓은 노래가 나오고 있었다. 노래 소리를 들은 지민이는 어느새 자신이 아는 노래를 따라 부르게 되었고, 이렇게 시작된 노래는 지민이 뿐만 아니라 옆에서 그림그리기를 하던 정우와 하진이에게도 전달되었다. 그러나 위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민이와 정우와 하진이가 부르는 노래는 노래를 부르는 유아들로 하여금 이전에 하고 있던 활동을 방해하거나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부르고 있는 노래였다. 그러나 이 때 부르는 노래는 하고 있는 활동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술사가 마술에 집중하기 위해 주문을 외우는 것과 같이 하나의 활동에 보다 더 집중하고 몰입할 수 있는 에너지를 제공하는 마술사의 주문과 같은 역할 또한 담당하고 있었다.

한편, 유아들은 몰입 경험의 결과로 인한 내적 즐거움을 얻었을 때 노래를 부르기도 하였다.

소현이는 벽돌 블록을 가지고 쌓기 놀이를 하고 있다. 벽돌 블록을 하나 하나 옮겨 무너지지 않게 쌓으면서 “어린 석주가~ 얼마나 추워 떨어

니~”하며 노래를 부르다 다시 벽돌 블록에 집중하여 놀이한다. 그러다 갑자기 블록을 쌓으면서 또 “어린 석주가~”하며 한 소절 부른 뒤에 놀이에 집중한다. 이렇게 놀이를 하면서 갑자기 떠오르는 노래를 부르다가 다시 놀이에 집중하듯 계속적으로 반복하였다.

(D 어린이집, 2008, 1, 16)

소현이는 자유선택활동 시간에 블록으로 쌓기놀이를 하고 있다. 소현이가 블록쌓기에 집중하는 동안 소현이의 입에서는 노래가 들려지고 있었다. 이 때 소현이가 부르는 노래는 소현이가 의식하지는 못하였으나, 블록을 집중해서 쌓는 순간 혹은 그렇게 몰입해서 쌓은 블록이 무너지지 않고 잘 쌓여있을 때 느끼는 내적 쾌감이 표현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타인이 나의 노래를 들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놀이나 어떠한 활동으로 인한 내적 즐거움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유아들은 놀이와 활동의 즐거움을 노래로 표현함으로써 놀이 상황이나 활동에서 더 큰 유희충동(Schiller, 1995)을 발생시키고 있었다. 이렇게 자신이 느끼는 즐거움은 자신이 알고 있는 노래로써 재생되어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는데, 마치 성인들이 즐거운 상황에서 그들도 의식하지 못한 채 콧노래를 흥얼거리는 것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

3) 부르고 싶어서 부르는 노래

유아들의 하루 일과는 유아들에 의해 구성되기 보다는 교사가 그날의 주제와 학습내용에 적합한 활동들로 구성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유아들은 하루 일과 속에서 매 순간 노래를 부르지만 외부의 강요나 노래를 불러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들이 노래를 하고 싶다는 내적 동기에 의해 부르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그러나 활동과 활동사이, 줄을 서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릴 때와 같은 시간의 틈새에서는 교사나 노래를 시나 규칙에 구애받지 않을 수 있으므로, 진정으로 그들이 부르고 싶은 노래를 마음껏 부르고 있었다. 또한 시간의 틈새에서 부르고 싶은 노래를 부름으로써 지루한 상황으로 전락해 버릴지도 모르는 순간들이 유희의 순

간으로 전환되기도 하였다.

점심을 다 먹은 다현이와 다영이는 양치를 하기 위해 세면대 앞으로 간다. 자신들의 칫솔을 찾아서 들고 차례가 될 때 까지 줄을 서 있다. 다영이는 세면대 앞에 의자가 놓여져 있는 것을 보고 의자를 다현이 쪽을 볼 수 있게 방향을 잡고 앉는다. 다영이는 의자에 앉은 상태이고, 다현이는 다영이를 바라보며 서있다. 칫솔을 들고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던 다영이는 다리를 꼬덕이면서 큰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다.

다영 : 똥보아저씨 집에는 7명의 아들이 살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키가 크고요~ 나머지는 작데요~ 오른손 흔들어요~ 왼손 흔들어요~ 엉덩이 흔들어요~ 하하하 똥보아저씨 집에는 5명의 여자 딸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전부터 키가 작데요~

다현 : 다 똑같이 작나?

다영 : 응~ 아기보다도 더 작다. 요만큼보다 아주 작다.

(앉은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를 한번 쿵 짹고, 왼쪽 다리를 한번 쿵 짹는 것을 반복 하면서 노래를 부른다.)

똥보아저씨 집에는 7 명의 아이들이 있었는데요~ 그중에 하나 키가 작고요~ 나머지는 안작데요요요요요요요요~~~

(오른손을 올리면서) 오른손 올려요~ (왼손을 올리면서) 왼손 올려요~ 똥보 아저씨 집에는 7명의 아이들이 있었는데요~ 그중에 하나 키가 크고요~ 나머지는 작데요~

(A 유치원, 2008, 2, 14)

위의 사례에서 다현이나 다영이가 부르는 노래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거나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다. 다현이나 다영이는 점심 식사 후 양치질을 하기 위해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과 같이 활동과 활동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시간의 틈새에서는 교실의 전체 규칙을 방해하지 않는 행동들을 해도 괜찮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다영이가 먼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자 다현이 역시 노래에 관심을 보였고, 어느새 둘은 율동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이 때 다현이나 다영이가 부르는 노래는 그들의 충만한 내적 동기에 의해 시작한 노래이며, 진정한 의미에서 부르고 싶어

서 부르는 노래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유아들이 부르고 싶어서 부르는 자발적 노래를 시간의 틈새에서 뿐만 아니라 공간을 이동하는 동안에도 들을 수 있었다. 특히, 실외라는 공간이 주는 자유는 유아들이 부르고 싶은 노래를 마음껏 큰 소리로 부를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었다.

아이들은 나들이를 마치고 두 명 씩 짝을 지어 어린이집으로 걸어가고 있다. 병찬이와 소영이는 손을 잡고 걸어가면서 소영이가 먼저 노래를 부른다.

소영: 창밖을 보라 창밖을 보라 흰 눈이 내린다.~

병찬이도 소영이의 노래를 듣고 따라서 부르기 시작한다.

병찬: 창밖을 보라 창밖을 보라~ 내린다~

현준: 하하하하, 창밖을 보라가 내린데~

소영: 창밖을 보라~

수인: (앞에 걸어가고 있다가 뒤돌아서 소영이를 바라보며)

창밖을 보라~ 창밖을 보라~ 흰 눈이 내린다~

소영, 수인: (걸어가면서 수인의 노래를 이어 부른다.)

창밖을 보라~ 창밖을 보라~ 흰 눈이 내린다~

수인: 한 겨울이 내린다~ 하하하하

(D 어린이집, 2008, 1, 23)

산책을 마치고 원으로 귀가하던 소영이는 최근에 많이 불렀던 노래가 생각났고, 생각난 노래를 불렀다. 산책 후 어린이집으로 되돌아 가는 길에 부르는 소영이의 노래는 노래하는 시간이거나 노래가 필요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자신이 부르고 싶은 노래가 무의식적으로 발산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소영이의 노래를 들은 병찬이도 곧 소영이가 부르는 노래를 같이 불렀고, 순식간에 함께 걷고 있는 유아들에게 전염되어 길을 걸어가는 내내 노래 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와 같이 한 유아로부터 시작된 노래는 모든 유아들의 노래 부르기에 대한 욕구를 자극하였고, 전체 유아들의 노래를 부르고 싶다는 욕구는 실제 노래를 부르는 행위로 나타나고 있었으며, 이렇게 그들의 내적 동기나

욕구에 의해 노래를 부르는 것을 통해 유아들은 심리적 만족감도 얻고 있었다.

2. 문화로서의 노래 즐기기

문화란 한 사회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만 나타나는 공통된 특성(국립국어연구원, 1999)이다. 따라서 문화는 그 사회의 구성원들끼리 서로 공유되고, 전달되어 어떠한 행동양식을 만들어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유아들은 이미 성인들에 의해 형성된 대중가요라는 문화를 누리고 있었고, 어떤 노래를 알고 있는 유아들끼리 혹은 한 노래를 전체 반 유아 모두가 향유하면서 문화 공동체를 형성하기도 하였다.

1) 또래문화를 함께 하기 위한 노래

유아들은 내가 아는 노래를 다른 친구들이 알고 있을 때 그 친구에 대해 동료의식과 친밀감을 형성하였다. 이 때 유아들이 부르는 노래는 유아교육기관에서 배운 노래나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들으면서 익힌 노래였다. 이렇게 한 유아가 자신이 아는 노래를 시작할 경우 그 노래를 알고 있는 다른 유아들도 같이 노래를 부르는 상황이 종종 연출되고 있었다.

시현이와 아현이는 책상에 앉아 알림장을 적고 있다.

시현 : (알림장을 적으면서) 딱따구리 구리 마요네즈 마요네즈는 맛있다

인도 인도 인도 사이다 사이다 사이다 오 땡큐~

아현 : 나도 이 노래 안다. 우리엄마 전화기에서 나오는 노래다.

시현 : 우리 슬리퍼도 똑같은 거제~

아현 : 어~ 아하하하하~

아현 : 우리 또 할래?

시현 : 어~

아현, 시현 : (공책에 글자를 적으면서)

딱따구리 구리 마요네즈 마요네즈는 맛있다 인도 인도 인
도 사이다 사이다 사이다 오 땡큐~

아현 : 니 이런 노래 아냐?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시현 : 어~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아현이와 시현이는 같이 노래를 불렀고, 유진이가 아현이에게 자신의
싸인이라며 보라f는 말에 시현이와 함께 부르던 노래는 끊어져버렸다.)

(A 유치원, 2008, 1, 24)

시현이와 아현이는 책상에 앉아 알림장을 적고 있었다. 알림장을 적던
시현이가 자신이 아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였다. 시현이가 부르는 노래
는 아현이도 이미 알고 있는 것이었고, 시현이가 부르는 노래를 아현이도
알고 있다는 사실은 시현이와 아현이 사이에 동질감을 불러일으켰으며,
서로 친밀한 관계로 만들었다. 이러한 동질감은 그들의 슬리퍼가 같음으
로 인해 한 층 상승되기도 하였다. 이렇게 유아들은 똑같은 노래를 알고
있는 것에 대해 동질감을 느끼며 이 노래에 적극적인 동조와 호응 맞추기
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있었다.

교사는 자유선택활동을 끝내고 정리시간임을 아이들에게 이야기하고, 아
이들은 교사의 말에 각자 활동하던 교구와 블록을 정리하기 시작한다.
성환이는 자신이 가지고 놀던 블록을 정리하면서 노래를 흥얼거린다.

성환 : 아아아아아아~ 라떼리또~ 랄랄랄라 라떼리또~

(성환이가 블록을 정리하며 이 노래를 흥얼거리자 민재와 승훈이가 성
환이 옆으로 다가와 함께 블록을 정리하며 성환이와 같은 노래를 흥얼
거린다.)

민재, 승훈 : 랄랄랄라~ 라떼리또~

(민재는 다른 쪽으로 자리를 옮기고, 성환이와 승훈이는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고 웃으며 반복적으로 노래를 흥얼거린다.)

성환, 승훈 : 아아아아아아~ 야야야야야~ 아아아아아아~ 라떼리또~

랄랄랄라~ 라떼리또~ 랄랄랄라~ 라떼리또~

(교사의 “다정반 빨리 정리합시다.”라는 말에 성환이와 승훈이는 블록을
가슴 앞으로 안고 블록 통으로 옮기면서도 그 음을 계속 반복한다.)

(B 어린이집, 2008, 2, 1)

자유선택활동을 마치고 교구를 정리하면서 성환이는 자신이 알고 있는 CM송을 불렀다. 성환이가 부른 CM송이 TV에서 많이 나왔던 것이므로 민재와 승훈이도 익히 알고 있는 것이었고, 성환, 민재, 승훈은 그들이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CM송을 부르면서 교구를 정리하였다. 이렇듯 유아교실에서 유아들은 한명의 유아가 노래를 부를 경우 그 노래를 아는 다른 유아들에게 ‘나도 아는 노래’라는 동질감을 전달하게 되어 어느새 노래를 아는 친구들은 하나의 ‘노래 공동체’를 형성하였고, 공동체에 속한 구성원들이 같은 노래를 부르게 되었다. 이러한 동질감은 경험이나 생활세계가 유사한 유아들 사이에서 형성되거나 그들이 하나라고 인식하게 하는 사건이나 사물들을 통해 형성되고 있었는데, 그 중의 하나가 노래였다. 유아들을 하나라고 인식하게 하는 노래는 위의 사례에서와 같이 유아교육기관에서 학습한 노래 이외에 TV 등의 대중매체를 통해 알게 된 CM송이나 대중가요 등 다양한 장르의 노래가 존재하고 있었다.

2) 대중문화를 함께하는 유아

연령이 어린 유아들 역시 이 사회의 구성원임에는 틀림없다. 유아들은 그들이 이 사회의 구성원임을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확증해 주고 있었다. 그 중의 하나가 성인들이 주로 듣고 부르는 대중가요를 유아들도 부르고 있다는 현상이었다. 실제 유아들은 성인들 못지않게 대중가요를 잘 알고 있었으며, 즐겨 부르고 있었다. 연구자가 몇몇 유아들에게 대중가요를 어디서 배웠느냐고 묻자 유아들은 TV와 라디오, 인터넷 등의 대중매체를 통해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유아들 역시 우리 문화의 한 구성원이라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었다. 실제 유아들이 대중가요를 부르는 모습은 관찰일지와 연구자일지에서 찾아 볼 수 있었다.

성원이는 블록놀이를 하면서 “착각의 늪”과 “쇼”라는 대중가요를 부르고 있다.

성원 : 빠져 빠져 모두 빠져 버려~ 피할 수 없는 나의 매력 속으로~

이제는 한 사람을 사랑할꺼야~ 그건 바로 너!!

Show! 끝은 없는 거야 지금 순간만 있는 거야~

난 할 수 있을 거야 언제까지나 너와 함께~

송희는 “소녀시대”라는 대중가요를 부르면서 그림그리기를 하고 있다.

송희: 어리다고 놀리지 말아요~ 수줍어서 말도 못하고, 어리다고 놀리
지 말아요~ 수줍어서 말도 못하고~

(B 어린이집, 2008, 2, 1)

역할 영역방의 나무블록이 우연히 마이크로 변해자 역할 영역방은 노래
방으로 변했다. 아이들이 입력하는 노래는 바로 요즘 가장 유행하고 있
는 가요 “Tell me” 였다. 아이들은 Tell me 춤도 추면서 노래도 불렀는
데, 그 이후 노래 번호 입력을 할 때마다 아이들은 Tell me를 반복적으
로 입력하였다. 이렇게 요즘 유행하는 가요 또한 아이들이 즐기는 노래
중의 하나가 되어 있었다.

(연구자 일지, 2008, 1, 10)

이상의 연구자 일지에서도 드러났듯이 유아들은 유아교육기관에서 배운
노래 이외에 대중가요를 자주 부르고 있었는데, 이러한 현상은 대중문화
가 성인만의 소유물이 아니며 유아들 역시 대중문화를 이루는 한 구성원
이자 대중문화의 결과물로 나타난 대중가요의 소비자임을 나타내는 현상
이라 할 수 있다.

한복 그림 그리기 활동을 하던 다영이가 노래를 부른다.

다영 : 짠, 짠, 짠돌이~ 우당탕탕~ 빛나리~ 빛나리~ 반짝 반짝~

지원 : (다영이 옆자리에서 그림을 그리다가 다영이의 노래를 듣고)

그거~ 45번에 한대이~

지원 : 골목대장 통통이~~~ 이것도 한다.

다영 : (음을 넣어) 골목대장 통통이~

(A 유치원, 2008, 1, 11)

윤관과 정우는 사각블록을 이용하여 만들기를 하고 있다. 윤관은 블록을
가지고 놀면서 노래를 부르고, 옆에 있던 정우도 따라 부른다.

윤관 : 나는야 통통이~ 골목대장이라네~

정우 : 나는야 통통이~ 골목대장이라네~

(C 유치원, 2008, 1, 29)

원으로 도착하여 아이들은 옷장에 자신들의 옷을 정리하고 점심 먹을 준비를 한다. 지희는 책상에 걸터앉아 옷을 벗고 있다.

지희 : (목소리 양쪽으로 잡고 하늘 높이 올리면서 통통이 노래를 부른다) 나는야 통통이~ 골목대장이라네~~

(D 어린이집, 2008, 1, 16)

연구자는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4곳의 유아교육기관 중 3곳의 기관에서 동일한 노래를 들을 수 있었다. 위의 세 사례에서 보듯이 지역과 연령이 서로 상이한 유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공통된 노래가 불리고 있다는 것은 모든 유아들이 좋아하며 즐겨 부르는 노래가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 위의 사례에서 등장한 노래는 TV에서 방영되고 있는 ‘나는야 통통이’라는 만화의 주제곡이었는데, 관찰 대상이 된 대부분의 유아들은 전체 노래 중에서도 ‘나는야 통통이~ 골목대장 이라네~’라는 부분을 가장 좋아하고 있었고, 이 부분을 반복적으로 부르고 있었다. 연구자 일지에서도 밝혔듯이 유아들이 TV에서 상영하는 만화의 주제곡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은 유아들의 생활 역시 TV라는 대중매체에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유아들도 이 시대 대중의 한 구성원으로써 그들을 위해 제작된 대중문화를 필요에 따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대중문화 소비자’의 역할을 실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3) 독창적 교실문화를 위한 노래

한 사회 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특성은 그 사회의 문화가 되어 서로 공유하고 전달되며, 다른 문화와의 변별력을 형성한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4곳의 유아교육기관을 관찰한 결과 각 기관이 가지고 있는 교육철학이나 교육관, 기관이 위치한 지역적 특성 등에 영향을 받아

그들 나름의 특색을 가진 교실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었다. 또한 기관의 특성이나 유아들의 환경에 따라 노래를 활용하는 모습이나, 좋아하는 노래가 상이하였으며, 이러한 모습이 그 반의 문화가 되어 서로 공유되고 전달되면서 즐거움을 만들고 있었다.

A유치원 아이들은 그들이 좋아하는 만화 주제곡을 노래로 부르다가 그 만화 주제곡에 맞춰 세세세와 같은 놀이를 창의적으로 만들어 냈다. 유아들이 만든 노래와 놀이는 그 반 전체 아이들에게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그것은 유아들의 세계에서 공유하는 문화가 되어버렸고, 그 반의 문화가 되었다.

(연구자 일지, 2008, 1, 24)

위의 연구자 일지에서 보듯이 유아들은 만화 주제곡을 부르면서 그 노래에 맞는 손동작을 첨가하여 옆에 있는 친구와 함께 놀이를 하는 모습을 종종 관찰할 수 있었다. 이처럼 유아들은 노래에 맞추어 손동작을 만들어 내고, 만들어진 노래와 동작을 몇몇 친구들과 공유하였고, 어느새 그 반 전체가 함께하는 놀이문화가 되어 그 반만이 가지는 고유한 교실문화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형성된 공통의 노래와 놀이를 나누는 동안 그 반의 모든 유아들은 동질감과 친밀감을 형성하여, 질 높은 의사소통을 하고 있었다.

자신들이 생활하는 공간을 스스로 청소하고 있었다. 아이들은 청소를 조금 더 즐겁게 하기 위하여 노래를 부르기로 약속하였는데, 오늘의 도우미는 노래선정의 리더가 되었다. 오늘의 도우미는 소영이였고, 어떤 노래를 부를 것인지 친구들과 정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 교실에 있는 아이들은 청소를 조금 더 즐겁게 하기 위하여 노래라는 매개체를 사용하게 되었고, 청소를 할 땐 노래를 부른다는 것이 이 교실만의 문화가 되어버렸다.

(D 어린이집, 2008, 1, 23)

D어린이집 유아들은 자신들이 생활하는 공간을 깨끗하게 청소하자고

자발적으로 약속하였다. 그 이후 유아들은 매일 반복되는 청소시간을 즐거운 시간으로 만들기 위해 ‘노래’라는 매개체를 활용하였다. 청소시간에 부를 노래의 선정은 그날의 도우미 친구가 다른 친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결정하였다. 이와 같이 처음엔 단순히 지루해 질 수 있는 청소시간을 즐거운 청소시간으로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노래 부르기는 D어린이집의 청소시간에서만 볼 수 있는 고유한 행동양식으로 발전되었다. 즉, D어린이집에서는 ‘노래 부르는 청소시간’이라는 독특한 교실문화를 형성하게 된 것이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실에서 교육주체로서 하루일과를 보내는 유아들의 노래의 의미를 현상학적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교실에서 노래는 교사가 주도적으로 가르치는 것보다 유아들 스스로 주인이 되어 다차원적으로 활용되고 변형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현재 유아음악이 교육으로서 교사가 계획하고 가르쳐야 한다는 교사 주도형 교육과정에서 유아가 사랑하고 즐기는 다양한 노래에 대해 귀 기울이고 함께하는 노래문화로 이해가 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 유아들은 교사가 부재하는 순간에도 끊임없이 노래를 찾고 흥얼거리고 즐기고 있었으며, 이러한 유아의 노래문화는 단순하게 유아음악교육을 넘어서서 유아의 생활을 이해하고 유아의 존재자체를 밀착하게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통로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선생님과 함께 하는 즐거운 노래와 또래친구와 비예측적 상황에서 모두가 알고 있는 노래를 불러보는 것, 유치원이 아닌 집이나 길거리에서 듣는 흥겨운 대중가요조차 교실에서 학습의 즐거움으로 변형하여 즐길 수 있는 유아들의 노래 부르기 능력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둘째, 유아교실에서 노래는 정해진 교과처럼 음악시간이나 새노래 배우기 시간에만 연습되어 지는 것이 아니라 하루일과의 다양한 틈새에서 역동적으로 발생하고, 자칫 지루해지기 쉬운 시간들을 유아 스스로 리듬과 멜로디를 섞어 유연하게 이끌어 가는 흐름을 만들어 간다는 것은 쉴러(Schiller)나 니체(Nietzsche)의 지적대로 유아가 본능적으로 ‘심미적 인간’임을 보여주고 있다. 유아교실에서 교사에 의해 주도되는 노래는 자칫 지나치게 음악적 형식을 강조하게 되어(안경숙, 김소향, 2006; 윤현진, 2002) 유아가 즐기는 미적체험과 떨어질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서 교사의 주의 깊은 접근이 필요하며, 이에 반해 유아가 스스로 찾아내고 부르는 노래는 노랫말을 즉흥적으로 변형하거나, 즐겁게 하기위해 평상어에 리듬을 붙여 익살스럽게 표현하는 등, 음악이 예술장르로서 가지는 가장 중요한 가치인 ‘미적체험’과 자발적 ‘창의성’이 녹아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인간은 희노애락의 모든 순간에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는 인류의 역사를 볼 때 인간 스스로가 음악적이길 원했듯이 유아도 유아교실 속에서 스스로 소리와 멜로디에서 즐거움과 여흥을 찾고 창작적으로 즐기는 심미적 인간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셋째, 따라서 하루일과 속에서 유아들이 부르는 다양한 노래에 귀 기울여 볼 때, 유아들은 유아교육기관에서 노래가 좀 더 변형적이고 창의적 방법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의미화 될 것이 요구된다. 서론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유아음악 교육에서 노래 부르기는 가장 빈번하게 활용되는 활동이지만, 그 기계적 접근과 음악적 요소의 지나친 강조 등에 의해 오히려 즐거움이 퇴색해 버리고 있지 않는지에 대한 반성적 사유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유아의 노래는 매우 ‘유아적’이어야 한다는 고정된 관념은 유아가 대중가수 노래를 흥얼거리거나 만화주제가에 몰입하는 현상을 교육적이지 못한 것으로 이해할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유아들의 생활세계와 연관된 유아교실 노래문화에 대한 교사들의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유아교실에서 보다 즐겁고 유용한 노래문화를 만들기 위하여 유아교사들은 유아가 자발적으로 부르고 창작적으로 변형하

여 즐기는 다양한 노래의 종류와 레퍼토리에 좀 더 귀 기울이고 관심을 가질 것을 제안한다. 유아교사는 또한 노래란 교육적 기능 이외에 심미적 기능을 강하게 가진 매력적인 의사소통 방법이며, 전이활동이나, 지루한 활동에 전환을 주기 위하여, 그리고 하루일과의 어려움을 부드럽고 따뜻하게 감싸 안기 위하여 아름답고 좋은 노래를 풍부하게 활용하는 것(엄정애, 송정, 박미경, 2009)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유아들은 크고, 어지럽고, 지시적인 소리보다는 리듬과 멜로디를 가진 부드럽고 속삭이는 듯한 노래와 아는 노래, 친숙한 노래에 의해 훨씬 더 매혹적이고 유능한 학습자로 참여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유아가 교실 안팎에서 부르는 다양한 노래의 유형과 의미를 매우 근접한 거리에서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고자 하였으나, 한정된 기관과 소수의 연구 참여자라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연구자의 직관과 감성에 의한 기술적 방법에 의존하였다는 점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실증적인 양적 접근에 의한 실험연구의 뒷받침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참 고 문 헌

- 교육과학기술부(2007). 유치원 교육과정 해설 III. 서울: 대한교과서
- 국립국어연구원(1999). **표준국어대사전**. 서울: 두산동아.
- 권창길, 배현숙(2002). 효율적인 유아 음악 교수법에 대한 고찰. **영유아교육연구**, 5, 85-100.
- 김광자(2004). 포괄적 음악교육에 기초한 유아의 음악적 능력 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검증.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미옥(2003). 유아음악교육을 위한 음악환경 조성에 관한 연구 : 부산광역시내 유치원을 중심으로.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법순(2009). 유아의 음악능력 증진을 위한 포괄적 음악교육프로그램 개발.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순옥(2001). 유아기 아동의 효과적인 가창지도 방법 연구. **음악과 민족**, 22, 270-289.
- 김영연(2002). **유아음악교육론**. 서울: 학지사.
- 김연주(2008). 노래동화를 활용한 통합적 유아음악교육 프로그램개발 및 효과.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혜전(2004). 교사의 음악활동 실제와 자신감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마송희, 오채선(2005). 노래와 그림동화책을 활용한 영어교육활동이 유아의 어휘력과 이야기회상에 미치는 효과. **한국영유아보육학**, 30, 179-206.
- 박미경, 엄정애(2008). “새노래 부르기” 활동에서 다루고 있는 유아교사의 음악적 개념과 지도의 어려움. **아동학회지**, 29(3), 93-113.
- 박찬옥, 이효숙(2001). 유아음악극 활동의 교육적 효과 탐색. **한국유아교육학회**, 21(4), 331-354.

- 송윤나(2001). 체계적인 유아음악 교육 방안에 관한 연구. 서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인숙(2000). 아동의 음악이해에 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5(2), 23-44.
- 안경숙, 김소향(2006). 유아의 음악적 태도와 음악적 행동, 음악적 개념에 대한 교사의 평가 실태 분석. **음악교육연구**, 31, 63-87.
- 엄정애, 송정, 박미경(2009). 교사를 통해 본 유치원 현장의 음악교육과 실행의 어려움. **유아교육연구**, 29(1), 133-158.
- 유혜령(1998). 교수매체 환경과 유아의 경험양식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자유선택활동을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18(1), 131-152.
- 윤영배(2008). Orff접근법에 의한 유아음악교육 프로그램이 음악적성, 감성지능 및 창의성에 미치는 효과.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윤은미(2007). Gordon의 음악학습이론에 기초한 유아 음악과 동작의 통합 활동 프로그램 구성 및 적용 효과 탐색.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윤현진(2002). 대학의 유아음악 교육과정과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음악교육 실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다정(2004). 음악교육이 인격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유아기 음악교육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민정(2001). 관찰을 통해 이해한 유아의 음악활동과 실천. **교육이론과 실천**, 11(2), 273-282.
- 이영주(2005). 유치원 음악교육의 실태조사 연구.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유영, 엄정애(2003). 음악활동의 통합적 접근이 유아의 음악적 잠재력 및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교육과학연구**, 34(1), 41-54.
- 이인원, 김일영(2005). 유치원 일일 교육계획안에 나타난 음악교육내용 분석.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2(4), 319-334.
- 이은수(2004). 유아교육 기관에서의 유아음악교육에 관한 연구. **한국유아교육연구**, 1(1), 105-128.

- 이태분(2006). 상호작용에 의한 음악활동이 유아의 음악능력과 언어능력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유아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효숙(2001). 유아음악극 활동의 교육적 효과.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흥수(1992). **느낌과 통찰의 음악교육**. 서울: 세광출판사.
- 임부연(2005). 아름다운 학교에 대한 미학적 탐구 : 심미적 학교 개혁을 위하여. **교육학연구**, 43(4), 111-140.
- _____ (2008). “교육미학: 유아교육에서 미적학습을 중심으로.” 2008 한국 문화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 임혜정(2004). 유아교육기관에서 선호하는 동요에 관한 조사 및 악곡분석 연구.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임혜정, 김영연(2004). 유아교육기관에서 선호하는 동요의 적합성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24(6), 193-211.
- 장송희(2004). 유아 언어 학습에 있어서 영어 노래와 챗트의 효과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은주(2007). 현직교사를 위한 유아음악교육 프로그램 모형 개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은희(2007). 동화에 기초한 유아 음악극 프로그램 구성 및 효과 연구.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주은주(1993). 유아기 아동의 노래지도 실태분석 및 효율적인 지도방안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윤아(2006). 유아음악교육과 정서 지능과의 관계.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편해문(2002). **옛 아이들의 노래와 놀이 읽기**. 서울: 박이정.
- 한주미(2005). **노래하는 나무**. 서울: 민들레
- 황성숙(2004). 유아의 언어발달을 촉진하는 음악교육프로그램 개발. 계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Darrow, L. G.(1976). Televised music Lessons as educational reinforcement for correct mathematical responses with educable

- mentally retarded. *Journal of Music Therapy*. 13(2).
- Dewey, J.(1934). *Arts as experience*. New York: McGraw-Hill Book Company Inc.
- Evans, D.(1998). **라캉의 정신분석 사전**. (김종주 외 역). 서울: 인간사랑. (원전 1996 출판).
- Hollander, F. M., Juhrs, P. O.(1974). *Orff-Schulwerk, an effective treatment tool with autistic children*. *Journal of Music Therapy*. 11, 1-12.
- Katsuko, M.(1998). A material song and an old children's song. *Journal of Information Processing and Management*, 41(6), 489-491.
- Kneller, G. F.(1984). *Movements of thought in modern education*. New York : John Wiley & Sons.
- Lorton, J. W., & Walley, B. L.(1979). *Introduction to early childhood education*. New York : D. Van Nostrand Company.
- Marylee, M. L.(1976). *Music in Elementary Education : Enjoy, Experience, and Learn*. New York : Macmillan Publishing Co., Inc.
- Mathison, S. (1988). Why triangulate? *Educational Researcher*, 17, 13-17.
- McDonald, D. T.(1991). *Music in our lives: The Early Years*. Washington, D.C.: NAEYC.
- Merleau-Ponty, M.(1962). *Phenomenology of Perception*. (tr. C. Smith). London : Routledge & Kegan Paul.
- Nelson, D. L., Anderson, V. G., & Gonzales, A. D.(1984). Music activities as therapy for children with autism and other pervasive developmental disorders. *Journal of Music Therapy*, 21, 100-116.
- Nietzsche, F.(1973). *The Birth of Tragedy*. by Walter Kaufman, New

York : Vintage.

Schiller, F.(1995). **인간의 미적 교육에 관한 편지**. (안인희 역). 서울: 청하. (원전 1795 출판).

Strauss, A. & Corbin, J. (1990). *Basic of Qualitative Research : Grounded Theory Procedures and Techniques*. Newbury Park : Sage.

Turner, S. B.(2000). Caretaking of Children's Souls? Teaching the Deep Song. *YC - Young Children*, 55(1), 31-33.

ABSTRACT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Children's Singing in the Early childhood Classroom

This study attempted to a phenomenological approach to the various ways of singing sung by children in early childhood classrooms. The singing as one of activities in music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is viewed as more than the music. It is one of way of reflecting children's life and story as children utilize them in various ways for joyful play, and knowing. The study took about 10 weeks to collect the data, which involved non-participatory observations, video-taping, and researcher' journal.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young children are very capable of using singing in order to interact with the teachers and peers in closer ways. They are also able to utilize singing to make boring time joyful and to make a strong friendship. This study discussed that the early childhood teachers should be more attentive to children's singing, as more than music but as the expressing their joyful knowledge, intelligent and aesthetic mind.

투고일: 9월 28일, 심사(수정):11월11일(12월 5일), 게재확정일: 12월 11일